



한국의 보물, 해인<21>

제2부 한국불교와 해인신앙

중국 화엄종과 신라의 의상대사

(지난호에 이어서)

해동화엄(海東華嚴)의 초조(初祖)로 믿어지는 의상(義相, 625~702)이 668년에 당(唐) 나라에 가서 종남산(終南山) 지상사(至相寺) 지엄법사(智嚴法師)의 강석(講席)에서 화엄경을 연구할 때, 지엄법사가 해인(海印) 72개를 그려서 제자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때 의상스님이 그것을 보고 총괄적으로 한 개의 해인을 따로 만들어 지엄법사에게 바쳤다. 지엄이 이를 보고 “그대의 일개 해인이 나의 72개 해인과 상당(相當)하니, 그대의 해인은 총(總)이요, 나의 해인은 별(別)이다. 화엄경의 깊은 뜻이 그대의 한 개 해인(海印) 가운데 모두 들어있다.”라고 찬탄하고, 의상의 깨달음을 인가해 주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한다.

의상의 저작에 대한 『삼국유사』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또 법계도서인(法界圖書印)과 약소(略疏)를 지어 일승(一乘)의 중요함을 남김 없이 포괄했으니, 천년의 본보기가 될 만하므로 (사람들이) 다투어 소중히 지켰다. 그 밖에는 지은 것이 없으나, 한 술의 고기 맛을 알려면 한 점 살고기만 맛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법계도는 총장 원년 무진년(668년)에 완성되었다. ---

--- 又著法界圖書印并略疏, 括盡一乘樞要, 千載龜鏡, 萬所珍佩, 餘無撰述, 當鼎味一饗足矣. 圖成總章元年戊辰. ---

인용문의 “법계도서인(法界圖書印)”은 의상의 대표적인 저작이 분명하며, 이 기록을 통해 당시 일반 사람들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정도이며, 또 이 책이 상당히 널리 유포되었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의상의 대표적인 저작인 법계도(法界圖)는 현존한다.

법계도는 신라(新羅)의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가서 지엄대사에게 화엄경을 수학(修學)하고 그 오묘한 현리(玄理)를 통한 후에, 668년에 이를 총 210자(字) 7언(言) 30구(句)의 송(頌)으로 축약한 글인데, 54장이 있는 도인(圖印)으로 만든 것이다. 일명 법성도(法性圖), 법성계(法性偈), 법계도장(法界圖章), 해인도(海印圖), 화엄법계도(華嚴法界圖),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이라고도 하는데, 의상은 여기에 다시 주석(註釋)을 달아 『법계도기(法界圖記)』라 하였다.

이제 의상이 대표적인 저작을 남겼으며 이에 대한 주석서를 지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은 현존하는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삼국유사』에서 법계도서인(法界圖書印)이라고 지칭했을까? 필자는 법계도서인은 법계도가 문자와 도상(圖象)의 두 가지 형태로 이해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기록이라고 본다. 법계도의 내용과는 별도로 법계도를 형상화시켰던 상징적인 그림이 존재했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제 이러한 필자의 추정을 뒷받침해 줄 자료들을 하나씩 알아보자.

의상(義相)대사의 『해인도(海印圖)』

먼저 법계도(해인도)의 전문(大正藏) 45권 711면, 716면)은 다음과 같다.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 법성(法性)은 원융(圓融)하여 이상(二相)이 없으니, 제법부동본래적(諸法不動本來寂) 제법(諸法)은 부동(不動)하여 본래 고요하다. 무명무상절일체(無名無相絕一切) 이름과 형상이 없이 일체(一切)를 다 여의었으니, 증지소지비여경(證智所知非餘境) 깨달아 안 것이지, 별다른 경지가 아니라네. 진성심심극미묘(眞性甚深極微妙) 진성(眞性)은 참으로 깊고도 미묘하니, 불수자성수연성(不守自性隨緣成) 자성(自性)에 얽매이지 않고 연(緣)을 따라 이루었네. 일중일체다중일(一中一切多中一) 하나 가운데 일체(一切)가 있으며 다(多) 가운데 일(一)이 있으니, 일즉일체다중일(一即一切多即一) 하나가 곧 일체(一切)이며 다(多)가 곧 하나라네. 일미진중합시방(一微塵中含十方) 한 티끌 속에도 시방세계가 포함되니, 일체진중역여시(一切塵中亦如是) 일체(一切)의 모든 티끌도 역시 그러하다네. 무량원겁즉일념(無量遠劫即一念) 무량(無量)한 오랜 시간이 곧 일념(一念)이요,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即是無量劫) 일념이 곧 무량한 그 시간이라네. 구세십세호상즉(九世十世互相即) 구세(九世)와 십세(十世)가 번갈아 상즉(相即)하니, 잉부잡난격별성(仍不雜亂隔別成) 뒤섞임도 구별됨도 없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 처음 발심(發心)한 때가 바로 정각(正覺)의 순간이니, 생사열반상공화(生死涅槃常共和) 생사(生死)와 열반(涅槃)이 늘 함께 어울리고, 이사명연무분별(理事冥然無分別) 이(理)와 사(事)가 그윽하게 분별됨이 없으니, 십불보현대인경(十佛普賢大人境) 십불(十佛), 보현(普賢)과 같은 대인(大人)의 경계(境界)로다. 능인해인삼매중(能仁海印三昧中) 능인(能仁)의 해인삼매(海印三昧) 가운데 번출여의부사의(翻出如意不思議) 부단히 여의(如意)의 부사의(不思議)를 다루시어, 우보의생만하공(雨寶益生滿虛空) 중생 위해 보배 비를 뿌려 허공을 채웠으니, 중생수기득이익(衆生隨器得利益) 중생이 자기 (자신의) 그릇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네. 시고행자환본제(是放行者還本際) 그러므로 행자(行者)가 본마음으로 돌아가 파시망상필부득(息妄想必不得) 망상을 끊을 수 없다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지 못하리라. 무연선교착여의(無緣善巧捉如意) (그러나) 무연(無緣)의 훌륭한 솜씨로 여의(如意)를 잡는다면, 귀기수분득자량(歸家隨分得資糧) 분수 따라 자량(資糧)을 얻어, 집(本源)으로 돌아올 수 있리. 이다라니무진보(以陀羅尼盡無寶) 무궁무진한 다라니의 보배로 장엄법계실보전(莊嚴法界寶寶殿) 법계(法界)의 실다운 보전(寶殿)을 장엄하여, 궁좌살체중도상(窮坐實際中道床) 마침내 실제의 중도(中道) 자리에 앉으니, 구래부동명위불(舊來不動名爲佛) 예로부터 부동(不動)하니 이름하여 불(佛)이라 하네.

『법계도』의 내용은 『화엄경』을 집약하여 그 핵심을 밝힌 것이다. 짧은 글귀 속에 방대한 경전의 내용을 축약한 『법계도(해인도)』는 의상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그런데 의상은 이를 단순히 서술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도상으로 표현하였는데, 그 도상과 글자의 배열은 아래와 같다.*

一微塵中含十方 初發心時便正覺 生一死
一量無是即方成 益寶雨議思不意 涅
即劫遠劫念一別 生佛普賢大人如槃
多九量即一切 隔滿十海一能境出常
切世無一念塵亂虛別印二昧中翻共
一十是如一亦中 雜空分無然冥事理和
一即世互相一仍不 衆生隨器得利益是
一相二無融圓性法 匠際本還者行故
一諸智所知非餘 佛息盡寶莊嚴法界
中法證甚性真境 爲妄無隨家歸意寶
多不切深極微妙 名想尼分得資如寶
切動一絕相無不 動必羅陀以糧捉殿
一本來寂無名守 不不得無緣善巧窮
中一一成緣隨性自 來舊床道中際實坐

김탁 박사 / 신종교 연구자

필자 소개: 김탁 박사는 1963년 생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종산교단 미륵신앙의 성립과 전개』와 40여 편의 논문과 『조선의 예언사상』 (2016), 『일제강점기의 예언사상』 (2019), 『정감록과 격암유록』 (2021), 『증산사상과 한국종교』 (2022), 『시루와 배』 (2023) 등 12권의 책을 저술한 신종교 학계의 저명한 연구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 산골에 거주하면서 오직 학문 연구에 매진하시는 김 박사의 글은 독자님들에게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새로운 보혜사 성령의 새말씀 【10】

6. 인간과 만물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지난호에 이어서)

우주 만물은 신의 변화체다

인간과 이 세상 만물은 흙으로 빚어 만든 존재도 아니요, 수십억 년 전에 저절로 생겨난 것도 아니다. 인간과 만물은 영원전부터 창조자 빛으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신이, 음양의 빛이 되는 마귀 신에 포로가 되는 순간, 이 세상 만물로 쪼개지고 변화되어 생겨난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신과 마귀신의 복합체라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7. 예수는 성령을 받았는가 악신을 받았는가

사람들의 마음에는 양심과 욕심의 두 마음이 있듯이 신(神)에도 두 가지 신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이다. 하나님의 신을 성신이나 성령으로 표현하며, 마귀 신을 악신 또는 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신은 선한 신이요, 자비와 살리는 생명의 신이며, 마귀 신은 시기 질투와 분열의 신이요, 생명을 죽이는 사랑의 신이다.

하나님의 신은 창조력이 있는 신이나 마귀 신은 모방력이 있는 신이다. 마귀 신이 모방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 자기적을 행할 때 술객도 따라 했으며,

또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니 술객도 따라 만들었다는 성경말씀을 보아 마귀가 모방의 신이요, 하나님의 신은 창조력이 있는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신은 모두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기도 하며 자연 속에도 존재한다. 인간 속의 하나님의 신은 양심의 자리에 있으며 진아(眞我)라고도 한다. 마귀 신은 현재 나라는 주체의식을 주관하는 욕심의 마음이며, 양심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다. 그래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 인간은 양심대로 행하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는 욕심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죄인이라 한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공중 하늘에 있는 줄 알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으나, 에베소서 2장 2절과 6장 12절의 말씀을 볼 때, 역시 인간 속의 양심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신과 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신이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 곧 악신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곧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 속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신이 사랑의 신이 되는 마귀에 의해 죽기 때문에 그 개체도 소멸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욕기서 14장 10절 이하에는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누

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하는 말씀이 기록하여 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그 자손이나 부모 형제 속에 자신과 똑같은 생명 유전자도 있기 때문에, 그 혈통을 따라 죽은 자의 영도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이라 하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되는 생명이 양심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죽은 조상님의 영들은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유전자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신을 믿지 않으나 여자가 시집을 가서 대를 이어주지 못하면 칠거지악 중에 하나로 여겼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나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고로 성령이 아직 너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였다.

또 마태복음 12장 49절 이하에는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하고 있으나, 공중 하늘의 신이 악신이요, 불순종의 영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

하고 하는 말이다. 앞에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6장 12절의 말씀을 들어 공중 신이 악신이요 불순종의 영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9장 5절에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하여 다메섹 고개를 넘어갈 때, 공중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며 사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사울이 깜짝 놀라서 숲속으로 들어가 엎드려 숨으면서 “주여, 뉘 시니이까?” 하고 물었다.

이때 공중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사울이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예수 신이 지시한 대로 다메섹 고개 넘어 마을에 내려가서 아나니아를 만나 안수를 받고 눈이 나아서 예수를 증

거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이다. 예수 신을 받은 사도 바울 역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 행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은 행하는 도다.” 하였으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음을 고백 하였다.

이처럼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신을 힘입어 역사하는지, 공중권세 잡은 악신의 힘을 입어 역사하는지 신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올라 올 때 공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 듣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곧 세례 요한의 신관

이 공중 하늘에 하나님의 신이 있다고 한 신관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태초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 하나님이 선악과가 되는 마귀 신에 사로잡힘으로써, 하나님의 신은 만물 속에 갇혀 있는 상태이며, 공중권세를 잡은 신이 마귀 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신을 이기신 구세주 하나님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전지전능한 성령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이며, 마귀를 이기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간자 구세주가 될 때, 비로소 우주의 권세를 회복하여 전지전능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一行徐輔睦

말씀 묵상으로 구세주의 실체를 알아가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죽기 싫지만 죽는 그 까닭을 모르는 고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슬피 여기면서 죽기를 싫어하는 고로, 구세주 나타나기를 손꼽아서 기다렸어? 안 기다렸어?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죠? (예) 아무 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고로 그리고로 이제 그대로 지금에 와서는 이제그대로 구세주가 나타날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죠? (예)

잡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예) 이제그대로 무슨 요술쟁이 모양 이제그대로 갑자기 뒤집어진다던 이건 믿을 수가 없지만 이제 오늘날 이 사람이 논하는 논리는 단계적으로 먼저 사람이 영생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이제그대로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 공기가 변하고 이제 공기가 변하면서 이 세상 만물이 죽지 않는 만물로 변화면서 죽지 않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1992_03_07 말씀)

그리고로 이제그대로 오늘날 구세주가 나타나기만 하면 죽지 않는 세상이 되고 이제그대로 구세주가 나타나기만 하면 이 세상은 바로 이제그대로 완전히 하늘나라가 되면서 이 세상은 바로 고통이 없고 괴롭이 없고 슬픔이 없는 세상으로 완전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

말씀 묵상 : 최악의 기후 재난 시대를 맞아 위기로 치닫는 지구환경을 지상낙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공기를 변화시켜서 변화된 공기로 만물을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 구세주는 공기를 변화하게 하는 방법을 전수한다.*